

# 도굴... 파손... 무관심... 중병 앓는 聖山



머리없는 불상  
상대만 온전했다더라면 국보급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주는 불상 여러 좌상. 가사끈 매듭의 빼어난 조각 솜씨가 돋보인다.

## 특별기획

### 경주남산 재조명

#### 연재 순서

- ① 총론
- ② 남산은 어떤 산인가
- ③ 남산 훼손실태
- ④ 남산을 가꾸는 사람들
- ⑤ 남산 이렇게 지키자
- ⑥ 남산으로 떠나자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훼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삼릉계곡 마애여래좌상 아래, 3년생이 안된 어린 소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있었다. 분재 목적으로 채취했다

죽이다. 각종 편의시설물도 남산 경관훼손의 원인이다. 대표적인 예가 포석정-상사암-이영재-탑마을로 이어지며 남산을 갈라놓은 순환도로. 폭 5~7m로 승용차 두 대가 마주치며 지나갈 수 있는 꽤 넓은 비포장 도로이다. 이 도로는 남산을 돌로 갈라놓아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5년전 차량진입을 폐쇄했지만 요즘도 힘으로 밀어부쳐며 자동차로 오르는 사람이 있다.

#### 동식물·유물조사도 미비

금오봉과 고위봉 정상에 헬기장과 용장굴 입구의 교도소 이전은 남산보호단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부흥사 위 전망대로 불필요한 시설물이라는 지적이다. 윤경렬 선생은 "부득이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면,

남산을 오르다보면 안내자로부터 "상대만 온전했다더라면 국보급으로 손색없을 겁니다"라는 설명을 듣게 된다. 불상 어귀 길 옆에 목 뒷부분이 없어진 채 남아있는 불골여래좌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왼쪽 어깨에 맨 가사끈 매듭이 선명한 조각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등직한 체구에 앉아있는 모습이 편안하면서도 위풍당당하다. 머리가 없어진채로 부근 계곡에 파묻혀 지나가는 사람들의 정경다리로 쓰이다가 최근에야 현재의 위치에 옮겨놓았다. 원위 치인지는 알 수 없다.

#### 관리예산 인력 절대부족

노천박물관으로 불리는 경주남산은 영구 보존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현지 사람들의 답변은 회의적이다. 남산사람모임 회장 김덕수씨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난 94년 10번째의 남산신성비가 발견됐는데, 등산객이 집에까지 운반했다가 이틀뒤에 국립경주박물관에 신고했다. 다행히 박물관에 보관 전시되고 있지만 이 바람에 원형이 많이 훼손됐다. 지금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른다. 남산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

남산에서 가장 큰 부처님 높이가 10m의 약수골 마애불도 머리가 없다. 몸체는 큰바위에 새기고 머리와 광배는 별도의 돌로 조각해 얹었던 흔적만 보인다. 석탑도 예외가 아니다. 포석정 석탑. 지금 석재들은 다 없어지고 한 개의 지붕 옥개석 네모막이 언덕위에 있고, 또 한토막의 옥개석은 언덕 밑에 있다. 이같은 파손은 대부분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도굴과 반출 때문이다. 멀리는 조선시대 배불정책으로 사찰이 폐쇄되어 돌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국사골 제1사지와 용장골 17사지 잡골 사지의 탑은 탑재가 유실되지 않고 남은 채로 남아 있어 적은 예산으로도 복

## 머리없는 석불·깨진석탑 복원안고 방치 불법 분묘 4천여기 순환로 생태계 파괴

원인 가능한데도 방치돼 있다. 물론 1천년도 훨씬 넘는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이만큼이라도 보존되어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되기도 하지만 훼손된 대부분의 석불 석탑이 인위적으로 파손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나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마애불들이라는데서 알 수 있다. 남산은 1920~30년 사이 일본학자들에 의해 조사되기 시작했고, 1940년 이를 토대로 조선총독부에서 최초의 남산조사보고서인 <경주남산불적>이라는 책을 펴냈다. 정작 해방이 되었어도 우리 민족에 의한 조사는 없었다. 80년에 와서야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최근에 와서야 경주시민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보호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사진과 글로 기록을 남기고, 이것들을 책으로 엮어 남산이 지닌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되새겨

가 버린 것으로 보였다. 무분별한 산행이 낳은 문화유적지 훼손현상이었다. 최근에는 인근의 울산 포항지역 공단 근로자들의 극기훈련장으로 남산이 이용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모의소총을 쏘며 전투를 방불케 하는 서바이벌게임까지 벌어져 주민들의 신고로 제지되기도 했다.

불법분묘 문제도 심각하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된 삼릉계곡 마애관을 보살상 부근에만도 서쪽과 아래쪽에 2기의 분묘가 있다. 이 분묘들은 최근에 설치된 것인지 분묘에 전지도 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비석과 상석도 없었다. 이같은 분묘가 남산 일원에 많게는 4천여기 이르고 추산하지만 경주시관리사무소에서는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3명의 관리인원(이 가운데 6명은 정소원)로 40여개 계곡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감시하기에는 역부

조형물 하나라도 어떻게 남산에 어울리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산은 지난해에 약 50여만명이 다녀갔다.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아직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등산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봉산 등산로와 다르지 않게 답사로는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 소나무숲이 장관을 이루는 삼릉계곡은 남산 계곡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다. 이곳의 폭 3m의 답사길은 소나무 뿌리들이 겹으로 드러난 채 등산객과 답사객들의 발길에 채이고 있다. 이미 30cm 이상 파여 황토흙은 벗겨지고 2차지층이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 고속도로 노선과 역사가 남산을 따라 들어설 경우 최소한의 손길로 부처님과 자연과 사람의 융합의 극치를 보여주는 남산의 남산 다음의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남산은 현재 동식물 분포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산성비 피해가 공단이 전혀 없는 제주도 한라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남산은 국립공원과 더불어 사적지로 지정된 곳이다. 훼손 이후의 복구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동식물 분포 및 유물 유적의 종합적인 조사는 필수적이다. 지금과 같은 무방비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 민족에게는 물론 세계인의 문화유산인 경주남산은 어느 산과 닮았을 개발과 공해에 시달리며 제모습을 잃어갈 것이다.

경주=정성운 기자



삼릉계곡 마애관보살상 서쪽에 있는 불법분묘. 전지도 입하지 않아 흉물스럽다.

## 시론

### 노사악순환 단절하자

지난 6월 20일 마라톤 협상 끝에 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사들이 극적으로 단체협약을 타결하여 다행히 교통대란과 통신대란은 모면하였다. 이번 사태에서 공통된 주요 쟁점은 해고된 근로자들의 복지문제였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정부가 복지문제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종래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데 있다. 이러한 대타협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성숙한 협상자세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 해고자 만들지 않는 제도

93년 문민정부 출범후 노동부에 복직을 신청한 1천6백여명의 해고 근로자들 중 95년까지 복직된 자는 586명이다. 그 중 전교조 사태로 해고된 교원을 포함하여 지난 2년간 철도, 지하철,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 해고자가 절반을 넘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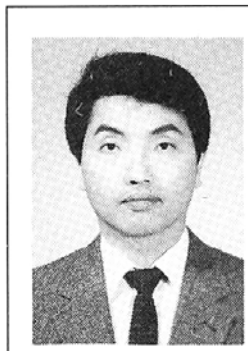
이번에 정부가 복지문제를 산업평화 차원에서 사용자의 자중에 맡긴다는 정향적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고질화된 해고근로자 복지문제를 스스로 먼저 풀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이것은 장차 민간부문에서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실정법을 위반한 해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그 지나침을 참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량없는 자비를 발하여 하루 빨리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해고 근로자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점차 그러한 해고자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는 일도 중요하다. 지난 4월 24일 발표된 대통령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에 따라 노사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노사관계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쟁의에 대한 직권중재 규정도 이번엔 개혁되어야 한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하에서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접수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따라) 일단 중재에 회부하면, 공공부문 노조는 15일간 파업할 수 없으며 파업은 불법이다. 그리고 노사 쌍방

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락하거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제도에 하에서도 노조가 파업하여 노조 집행부가 사법처리되고 대량 해고되었다. 이들의 복지문제가 또다시 노조의 단체협상의 핵심사항으로 등장함은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정부는 해고자 복지 문제가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또다시 국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성숙한 협상자세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대중교통이나 통신이 두절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공공부문 노조도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바로 이 때문에 공공부문 노조가 시민들을 불모로 하여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다는 국민들의 비난에도 일리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파업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정부당국의 신념에도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굴복하여야 하는 공공부문 근로자를 불모로 삼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다. 공공부문 노조도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바로 이 때문에 공공부문 노조가 시민들을 불모로 하여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다는 국민들의 비난에도 일리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파업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정부당국의 신념에도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노응원 (충남대 교수·경제학)

다. 경기가 불황이면 경제가 어렵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고, 호황이면 물가가 너무 오른다고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 생산성·근로욕 높여야

우리 모두가 선망하는 21세기 정보사회를 여는 열쇠는 구태의연한 투쟁과 억압이 아니다. 그것은 고도의 창의력과 넘치는 활력이며, 너와 내가 하나 되고 근로자와 사용자 하나로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제 파업은 무조건 안된대거나 노동조합은 무조건 결성할 수 없다는 식의 썩은 새끼줄은 버려야 한다. 노조가 없어도 되는 것 못지 않고 파업해도 안하더라도 못함을 실감할 수 있도록 제도도 고치고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도 민간부문에 못지 않은 파업한 인적 물적 투자와 책임경영제를 시행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높여야 한다.

## 전통사찰 제 74호 영장산 망경암

### 대웅전 복원불사 및 백일기도 권선문

서울 남산이 훤히 마주 보이는 마애불 (경기도 지정 유형 문화재 제102호)  
부처님께 고려조 임금님들이 기도 드리던 유서 깊은 도심속의 전통사찰 망경암(望京菴)

이곳 대웅전이 불기2540.4.7. 밤 0시경 방화로 보이는 화재로 소실되어 이로 인한 아픔을 딛고 빠른 시일내 복원하고자 합니다. "한 부처님이 출현하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만 중생이 안식처를 얻는다"합니다. 소실된 대웅전 복원불사 원만성취 기도와 더불어 1997학년도 대학수능시험 백일기도를 하오니 좋은 인연이 될 대웅전 복원불사와 대학수능시험 기도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와 동참을 권합니다.

- 기도시작 : 1996년 8월 6일(음력 6월 22일) 오전 10시
- 기도마침 : 1996년 11월13일(음력 10월 3일) 오전 10시

- 대웅전 불사 권선내용 : 기동, 주춧돌, 대들보, 석가래, 기와, 용두, 문짝
- 일반시주는 1구좌에 30만원 (5만원×6개월 분납됨) 시주자 현판에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 온라인 : 국민은행 213-01-0349-715, 우체국 102335-0194943-11 (예금주 : 망경암)
- 대웅전 불사에 동참 하시면 편리하게 시주하실수 있는 은행 지로용지를 보내 드립니다 (은행지번호 : 7627758, 시중은행에도 지로용지가 있습니다.)

← 소실전

↑ 소실후

망경암 약도

문의전화 : (0342)753-3090(사무실)  
(팩스)753-3091(주지실)  
753-3092(법사실)